

내년 의대생 2973명 중 수시서 60% 선발... “변수 다수”

학종전형 줄면서 1784명 선발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 신설
선택 과목, 수능최저 등 주의

올해 고3 수험생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에는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 전국 의대에서 총 2973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수시에서는 2021학년도 선발했던 1849명에 비해 65명이 감소한 1784명을 선발하며, 그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줄어든다.

지난 3년간 수시 의대 경쟁률은 2019학년도 30.58대 1에서 2020학년도 30.99대 1, 2021학년도 32.92대 1로 지속 상승해 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특히 의전원을 운영하던 대학들이 학부모집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2019년부터 의대 선발 인원이 증가해 이전보다 경쟁률이 하락했으나, 금세 회복한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2022 의예과 수시 1784명 선발…학종 전년비 109명 ↓

올해 의예과 수시 선발인원의 감소를 이끈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전년 대비 109명의 선발 인원이 감소했다. 특히 전남대의 경우 2021학년도에 학생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습.

/서울시교육청 사진공동취재단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던 지역인재전형(38명)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대폭 감소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 역시 학생부종합전형이었던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이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83명에서 42명으로 대폭 줄었다.

그 외에도 가톨릭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등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10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많은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되거나 지

역균형 선발 등이 증가하면서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은 소폭 증가했다.

세대의 경우 올해 신설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2명을 선발한다. 전남대는 2021학년도에는 일반전형으로 37명을 선발했으나, 2022학년도에는 일반전형 24, 지역인재전형 38,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명 총 63명을 선발해 전년대비 26명이 증가한 인원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가톨릭대, 건양대, 경상대, 동국대(경주), 을지대, 충북대, 연세대(미래)

등도 전년도보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이 소폭 증가했다.

〈2021(수시모집) vs 2022 수시(전형계획) 전형별 의대선발 인원 비교〉 단위: 명

학년도	교과	종합	논술	계
2022	829	815	140	1,784
2021	781	924	144	1,849
증감	▲48	▼109	▼4	▼65

/진학사

◆수능 과탐 제한 등 변경사항 확인 필수

2022학년도에는 수능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수시에서 적용받는 수능최저학력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과목 중 택1하고 과학탐구 과목 2개를 선택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과목에서 학률과 통계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

학률과 통계과목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건양대, 고신대, 순천향대, 을지대, 이화여대(인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수학에서 학률과 통계에 응시하면서 이들 대학에 지원한다면 가산점을 극복하고 합격이 가능할지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학 탐구 과목 선택 시의 제한 사항에서도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다. 가톨릭대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동일 분야의

I+II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능에서 생명과학 I+II 조합은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서로 다른 I+II 또는 II+III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강원대, 고려대, 연세대(미래), 울산대, 중앙대에서도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북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과탐 1과목 반영에서 2과목 평균으로 반영방법을 변경했으며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순천향대, 영남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등의 대학에서는 과학탐구 과목을 1개만 반영한다.

최상위권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당력을 좌우하는 결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입시 전문가 조언이다.

우연철 소장은 “특히 올해는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이 증가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수험생들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며 “수능 체계 역시 달라지는 상황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응시 과목 등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 꼼꼼한 모집 요강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랜선 졸업식, 포토존 촬영… 대학가 新풍경

오프라인 학위 수여식 대신
온라인, 축하영상으로 대체
대학들 캠퍼스에 포토존 마련
기념사진 찍으며 아쉬움 달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가 졸업식 풍경도 달라졌다.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졸업식으로 대체하면서 별도 졸업식 영상을 준비해 대학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학위증은 학과별로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다. 졸업생에게 대학 생활의 마지막 추억이 될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학교 측은 캠퍼스 곳곳에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교내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마스크 없이 대화하거나 ‘화이팅’ 등 구호를 외치는 건 금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숭실대가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오프라인 행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사전 제작한 영상을 교내 전광판에 재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영상에는 ▲학사보고 ▲장벽식 총장(권설) ▲박광준이사장(축사) ▲문태현 총동문회장(환영사) ▲강아람 목사(축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14일부터 5일간 학위복, 학위증 등을 단과대학 별로 분산 배부해 졸업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처럼 떠들썩한 졸업 풍경은 사라졌지만, 졸업생들은 교내 곳곳에 마련된



숭실대 졸업생들이 숭실대가 마련한 전광판 밑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숭실대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장벽식 총장은 “숭실의 교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4년 간 배운 지식과 지혜를 바탕 삼아 미래에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지난 16일 11시 2021년 봄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비록 마지막 해에 등교를 못하고 학교의 다양한 시설 또한 마음껏 이용하지도 못한 가운데 떠나게 돼 안타깝다”면서 “여러분은 조유의 온라인 원격수

업 1세대로서 대학교육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몸소 체험했다. 이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변화와 난관을 만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대도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를 졸업주간으로 정해 올해 제48회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졸업주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 학부사무실에서 학위증과 상패를 받고, 실내체육관에서 학위복을 대여할 수 있다.

대신 대학 홈페이지에 졸업식 축하 영상을 올렸다. 졸업 축하 영상은 오연천 총장과 김도연 이사장, 강문기 총동문회장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졸업생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오연천 총장은 “대학생활을 통해 쌓아온 기본역량과 전문역량은 졸업생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며 “여러분의 역량이 개인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위복을 대여한 졸업생들은 울산대 학생홍보대사가 중앙정원에 마련한 포토존에서 학사모를 하늘에 날리며 졸업의 기쁨을 대신했다.

한편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사진을 찍는 순간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화이팅’ 등 구호를 외치지 않고 조용히 사진을 찍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현진 기자

경희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디지털 혁신 교육콘텐츠와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은 19일 오전 8시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타볼로 24에서 혁신공유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대학은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혁신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 간 실질적 교류를 강화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협정서 체결에 앞서 콜로키움이 열린다. 콜로키움에서는 대학별 혁신 사례

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이 보유한 고유가치와 특징을 교육, 연구, 학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혁신지원사업 공동 성과포럼 행사도 마련된다. 성과포럼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사례 공유 및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혁신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 등 4개 대 취업지원 성과 공유

노원구 소재 4곳 취업 파트너십 강화

서울과기대·삼육대 등 노원구에 있는 4개 대학이 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오는 2월에는 ‘공동 취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7일 ‘노원 4개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는 서울과기대와 광운대, 삼육대, 서울여대가 대표적인 취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각 대학은 급격한 취업시장 변화와 채용 흐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취업 지원 공동 플랫폼



서울과기대와 광운대, 삼육대, 서울여대가 17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각 대학 취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울과기대

품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취·창업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개발, 취업 정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2월중에 체결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